

기업의 해외투자와 산업구조 고도화

이 한 구 소장
대우경제연구소

목 차

- I. 세계경제환경 변화와 해외직접투자 추이
- II.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와 해외직접투자
- III. 해외직접투자와 산업공동화 현상
- IV. 해외직접투자와 산업구조 고도화
- V. 정책제안

I. 세계경제환경 변화와 해외직접투자 추세

1. 세계경제환경 변화

'90년대 들어 세계경제는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지각변동을 겪고 있는 이른바 '역사의 경계' 시대에 놓이고 있다.

편집자주

본고는 1996년 10월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내용을 게재한 것임.

사회주의 몰락과 정보·통신의 발달, 세계적인 관세·비관세 장벽의 축소 등으로 단일 시장경제체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 세계경제는 신통상 이슈의 국제규범화를 통한 공정한 경쟁기반 구축과 국가간 경제수준의 평준화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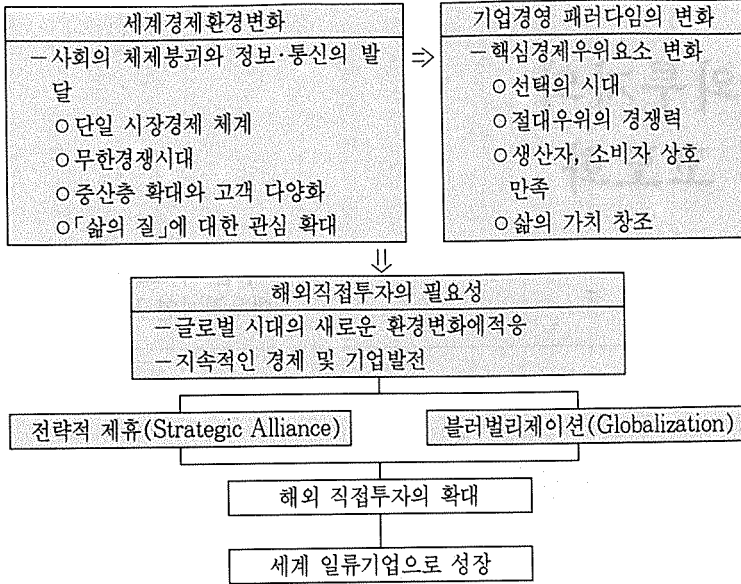
단일 시장경제체제의 형성에 따라 기업에게는 세계시장을 상대로 한 무한경쟁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지의 생활방식과 수요의

동질화, 세계적 상품의 등장, 세계를 대상으로 광고가 가능함으로써 기업의 판매기회가 증대되고 있으며, 생산방식도 세계차원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폭적인 비용절감이 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기업간 경쟁요소가 '양'이나 '품질'에서 나아가 고객에게 얼마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경쟁의 핵심요소로 바뀔에 따라 최대한 시장에 가까운 생산과 판매방식이 필요해지고 있다.

기업경쟁우위요소의 변화와 해외직접투자



세계직접투자의 증대추세도 세계 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경쟁과 투자자유화를 위한 제도구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세계직접투자의 패턴도 과거 1차산업과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과 기술집약적 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현지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선진국의 비교우위를 지닌 서비스 교역은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 무역이 제고되는 과정에서 현지투자 증대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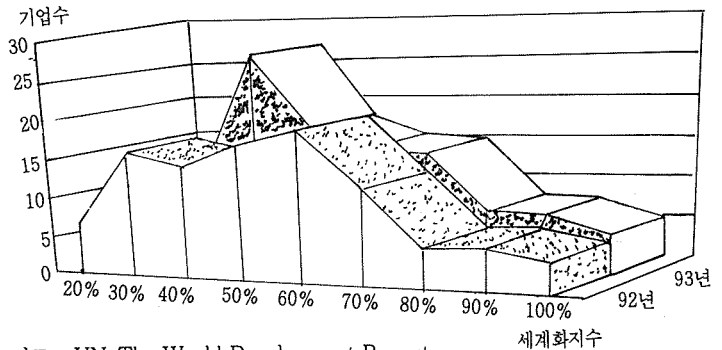
UN이 세계 100대 다국적 기업

2. 세계직접투자 추이

세계직접투자는 '90년대 들어서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전세계를 대상으로 국제분업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직접투자는 '80년대 전반기의 연평균 500억 달러 정도에서 '90년대 전반기에는 2,200억 달러 규모로 크게 증가된다.

〈그림 1〉 세계 100대 다국적 기업의 현지화 추세



자료 : UN The World Development Report

〈표 1〉 세계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10억달러)

구분		90년	91년	92년	93년	94년
해외투자 (outflow)	선진국	226	188	171	192	189
	개도국	17	11	19	29	33
	세계	243	199	191	222	222
외국인투자 (inflow)	선진국	176	115	111	129	135
	개도국	35	41	55	73	84
	세계	211	158	170	208	225

자료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95년.

의 총자산, 총판매액, 총고용인원 중 해외비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세계화 지수를 보면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추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90

해외투자제도 변천에 따른 해외투자 현황

구 분	도입기 (68~81)	점증기 (82~87)	활성기 (88~93)	급증기 (94~95)	누 계 (95년말)
투자건수(건) (구성비, %)	401 (6.8)	330 (5.6)	2,402 (40.8)	2,760 (46.8)	5,893 (100.0)
투자금액(억\$) (구성비: %)	1.73 (1.5)	9.65 (8.1)	53.38 (45.1)	53.64 (45.3)	118.41 (110.0)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각호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내용

(’95년말 누계기준, %)

업종별	제조업	무역업	광업	기타
	54.4	18.4	12.3	14.9
지역별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41.2	30.6	14.1	14.1
형태별	0~49%	50%	51~99%	100%
	19.4	9.4	21.0	50.3

주 : (1) 업종별, 지역별 투자는 금액기준임

(2) 형태별 투자는 건수 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각호

년대 들어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제도를 변천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해 볼 때 우리나라 해외투자는 '88년부터 본격화되어 '94년 이후 절대규모로는 비교적 빨리 증가하고 있다.

GDP에 대비한 비율은 우리나라는 '80년대 0.18%에서 '90년대 0.45%로 증가하고 있으나, OECD 국가 1.18%→1.85%, 동아시아 국가는 0.48%→1.55%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해외투자의 내용에 있어서도 해외투자의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

업종별 해외투자는 지난해말 누계기준으로 제조업이 전체의 54.4

%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업 18.4%, 광업 12.3% 수준이다.

지역별·국가별 해외투자도 진출국은 119개국에 달하나 투자잔액이 1억달러 이상인 국가는 18개국에 불과하며, 아시아와 북미 지역이 전체투자의 71.8%를 차

지하고 있다.

투자형태는 우리 기업들은 경영권 확보를 중시하여 지분을 51% 이상이 전체투자건수의 71.3%를 차지하고 있다.

II.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와 해외직접투자

1. 산업정책의 전개과정

통상적으로 한나라의 산업정책은 장래의 성장산업 육성과 사양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산업조직의 효율화를 내용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연대별로 다음과 같이 변천해 왔다.

'60~'70년대에는 수출산업 육성과 중화학공업의 생산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었으며, '80년대에는 과잉투자된 중화학 분야의 구조조정과 합리화 조치가 추진됐으며, 정부의 산업정책도 특정산업별 지원에서 기능별 지원형태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전개과정

시 대	정 책 목 표	주 요 수 단
60~70년대 전반	기간산업 육성, 수출 증대	금융·세제 등 보조금, 환율절하, 원자재 수입자유화
70년대 전반	중화학공업 육성	금융, 세제, 재정 지원, 개발사업 육성법에 의한 진입규제·행정지도
80년대 전반	산업합리화, 자율 및 개방	긴축재정, 진입규제완화, 수입자유화
80년대 후반	자율·개방 확대, 기술 및 생산성 향상	공업발전에 의한 기능별 지원, 수출지원 축소, 수입자유화 확대
90년대 전반	경쟁촉진, 기술혁신	규제완화, 대외개발가속화, 공정거래제도 강화, 기술개발지원 확대

자료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 업무편람, 95년 10월

산업구조 변화 추이

구 분	70년	80년	91년	95년	2010년
농 립 수 산 업	26.7	14.9	8.0	6.6	2.1
광 공 업	22.5	31.0	28.6	27.2	26.4
(제 조 업)	(21.3)	(29.7)	(28.2)	(26.9)	(26.2)
서 비 스 업 · 기 타	50.8	54.1	63.4	66.2	70.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경상 GDP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현재 우리 경제가 놓여 있는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산업구조의 고도화 추세는 앞으로 더욱 급진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의 우리 경제는 기술요소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분업 구조속에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과 재래기술 중심의 공

'90년대 들어서는 경쟁촉진과 기술혁신을 목표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산업발전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향후 산업정책은 새로운 대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하면서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OECD 가입 이후 새로운 환경변화에 초점을 둔 산업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산업구조의 변화추이와 전망

이러한 산업정책에 따라 그동안 우리 경제는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한 가운데, 제조업내 중화학 공업의 비중이 증대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전되어 왔다.

업종별로는 음식료업, 섬유업의 비중이 낮아진 반면,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수출구조도 중화학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95년에는 총수출의 71.3%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제도의 변천

단 계	제 도	비 고
도입단계 (68~74)	-68.12 : 외환관리 규정에 '대외투자' 장을 신설, 최초의 명문화	-해외투자를 자본유출로 해석, 최대한 억제
제도정비 단 계 (75~80)	-75. 4 : 해외투자 사후관리 요령 제정 -78.11 : 해외투자허가업무 취급세칙 제정 -78.12 : 해외투자 현지법인의 경영성과 분석 시작	-대외지향적 경제개발에 따른 원자재 확보 및 해외 수출시장개척을 위하여 해외 투자사업의 제한적 허용
규제완화 단 계 (81~86)	-81. 7 : 투자자 요건의 완화, 해외투자 사업계획의 사전승인제 폐지, 해외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82. 7 : 합작투자 투자비율의 완화	-국내경기의 안정을 기반으로 광업, 제조업 및 무역업 등의 해외투자 절차의 대폭 간소화
자유화 단 계 (87~89)	-86.12 : 해외투자 요건확정제 도입 -87.12 : 해외투자요건제 신고제로 변경 -88. 7 : 자기자본요건 폐지 -88.10 : 해외투자신고대상 범위확대 -89. 8 : 해외부동산 허용범위 확대	-국제수지 흑자실현을 배경으로 본격적인 해외투자 자유화 촉진
재조정 단 계 (90~94)	-90. 6 : 대규모 및 자기자본초과 해외투자 심사강화 -91. 3 : 해외투자 자율규제기준 배경 -91.12 : 외환관리법 개정(원칙자유예외 규제로 전환) -94.12 : 외환개혁조치	-국제수지적자 반전 및 일부 해외투자사업의 부정적 성과에 따른 해외투자제도의 부분적 재정비
도약단계 (95년 이후)	-95. 1 : 해외직접투자 제한사업 대폭 축소 및 투자기준액 조정 -96년 ~ : 해외직접투자 전면 자유화, 자산운용용 부동산취득관련 수출실적 한도 확대	-96년 OECD가입, WTO 금융서비스 협정 이행 및 우리경제의 선진화 차원에서 지속적인 자유화 추진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해외직접투자의 현황과 정책과제와 재무부 외환제도 개혁안을 토대로 재작성

업화를 시도하고 있는 후발 개도국의 중간단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고기술·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산업정책수단에서의 해외 직접투자 정책

한 나라의 산업정책 수행과정에서 사양산업의 구조조정의 한 방편이 되고, 기업의 국제화 측면에서 보면 경쟁력 배양과 적극적인 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정책은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외환 관리상 제약으로 산업정책 측면보다는 외환관리 측면에서 운영되고 있다.

'80년대 후반 들어서는 국제수지 흑자실현을 배경으로 외환관리상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산업정책적인 관점에서 해외 직접투자를 조망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국제수지 적자반전과 일부 해외투자 사업의 부정적 성과에 따른 해외투자제도를 부분적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즉,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기술 등을 개발 혹은 습득하기 위한 투자나 비교우위를 상실한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을 위한 투자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반면, 중요 기술의 해외 이전형 투자나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투자는 부메랑 효과와 산업 공동화 등을 우려하여 직접투자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4. 미국 및 일본형 해외직접 투자와 산업구조에의 영향

해외 직접투자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경험적으로 크게 개별 기업의 미시적 효율성을 증진한 미국형과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산업구조 조정 성격이 강한 일본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미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전반적으로 기술집약도가 높은 독점투자가 많으며, 해외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전형적인 시장 지향

형인 반면,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는 자국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한 업종을 해외로 이전시켜 진출국과의 무역증대와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시키는 전형적인 무역 지향형이다.

해외투자의 이같은 특성으로 자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진출산업의 국내 공동화를 초래하였고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았다.

반면, 일본은 해외진출 산업의 국내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사양산업의 여유자원을 자본·기술집약 부문으로 집중시킴으로써 국내 산업구조 조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직접투자

미국형과 일본형 해외직접투자의 비교

구 분	미 국 형	일 본 형
특 징	- 시장지향형	- 무역지향형
투 자 업 종	- 비교우위산업, 기술집약산업	- 자국비교열위산업이면서 현지국비교 우위화가 가능한 산업
주 된 형 태	- 단독투자	- 합작투자
투 자 시 각	- 기업의 국제경영	- 정부의 산업정책
투 자 동 기	- 현지시장에의 능동적 진출	- 수출시장의 확보를 위한 수동적 진출
기 술 이 전 방 식	- 기술, 자본력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부문의 우선적 이전	- 사양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저급 기술부문의 단계적 이전
비 교 우 위 원 천 효 과	- 기업특수적 우위	- 국가특수적 우위
문 제 점	- 독점이윤의 발생 -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 산업공동화 - 국제수지 악화 - 고급기술의 이전 가능성	- 공업간 국제분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현지투자마찰 - 업체간 과당경쟁 유발

자료 : 한국산업은행, 조사월보, 93년 11월

주요국의 해외직접투자규모(국제수지기준)

구분	미 국		독 일		일 본		대 만		한 국	
	FDI	대GDP 비율	FDI	대GDP 비율	FDI	대GDP 비율	FDI	대GDP 비율	FDI	대GDP 비율
88년	15,448	0.32	11,432	0.96	34,210	1.18	4,120	3.35	643	0.35
90년	29,950	0.54	24,210	1.61	48,050	1.64	5,243	3.27	1,056	0.42
91년	31,380	0.55	23,720	1.49	30,740	0.92	1,854	1.03	1,500	0.51
92년	42,660	0.71	19,670	1.09	17,240	0.47	1,869	0.88	1,208	0.69
93년	72,590	1.14	14,480	0.84	13,740	0.33	2,451	1.10	1,361	0.41
94년	49,380	0.73	14,650	0.80	17,970	0.39	2,460	1.02	2,524	0.66
누적	612,100	9.08	194,100	10.58	275,600	6.00	24,800	10.28	7,600	2.00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96월 2월
Taiwan Statistical Databook, 95년
Jetro 백서, 투자편 96년

에 의한 세계화가 급진전되면서
미일간의 이러한 차이는 축소되고
있다.

Ⅲ. 해외직접투자과 산업 공동화 현상

1. 산업공동화와 우리나라 해외투자 단계

해외 직접투자는 국제수지 관
리, 비교열위 산업의 해외이전,
첨단기술 도입, 기업의 국제화 도
모 등을 통한 국내 산업구조 고도
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역수입에 따른 부메랑 효과
와 진출산업의 수출, 고용감소에
따른 산업공동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공동화란 경제발전
에 따라 제1차, 제2차 산업의 비
중이 저하되고, 제3차 산업의 비
중이 상승하는 탈공업화(deindus-
trialization) 내지 서비스화를 의
미하며, 제조업 기술진보의 파행
성, 국제수지 불균형, 환율, 무역

마찰, 해외 직접투자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되고 있다.

반면, 좁은 의미로는 해외투자
에 의해 자국의 생산부문이 해외
로 이전되어 국내 제조업이 축소
되거나 약체화(hollowing out)되
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공동화 문제도 초기 단계부
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법
인의 조업상태에 따라 소위 해외
투자의 역 'J'커브효과가 나타나
는 것이 통례이다.

그동안 산업공동화의 타당성은
미국, 영국 등 서구국가에서 수출

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
로 논의돼 왔으나 아직까지 합의
된 견해는 없다.

오히려 국내 산업구조와 연계되
어 추진된 경우 공동화의 역기능
보다는 수출촉진, 경쟁력 강화,
고용안정 등 순기능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출
범 이후 해외생산과 국내산업과의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여 미국산업
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공
동화를 방지하고 무역수지 개선에
도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는 '88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
우 낮은 실정이다.

'94년 기준으로 절대규모는 미
국의 5.5%, 일본의 13.0%에 불
과하며 GDP에 대한 비율도 0.66
%로 미국 9.1%, 일본 6.0%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해외투자 누계액 기준으로는 일

해외직접투자과 수출의 변화패턴

구 분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현지법인	착공단계	생산 개시	생산 확대	안정조업
수출유발효과				
- 자본재	크게 증가	고수준유지	감소 시작	작은 규모에 머물
- 원자재	없음	크게 증가	고수준 유지하다가 감소 시작	낮은 수준까지 감소
수출대체효과	없음	없음	나타나기 시작	크게 확대
무역수지에 대한영향	흑자로 전환	흑자폭 확대	흑자가 최고에 달한 후 점차 감소	흑자폭이 대폭 감소 하거나 적자 반전

자료 : 한국은행,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 95년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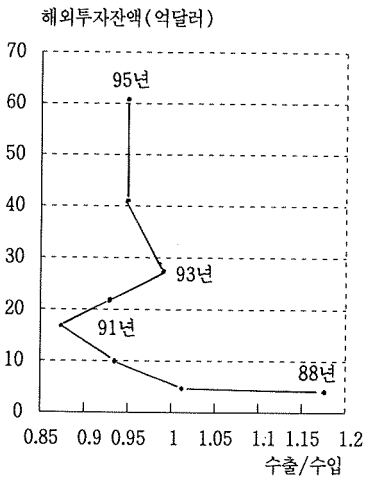
본의 1/30, 대만의 1/3수준이며, GDP에 대한 비율도 대만의 1/5, 일본의 1/3수준에 그치고 있다.

2. 해외직접투자과 수출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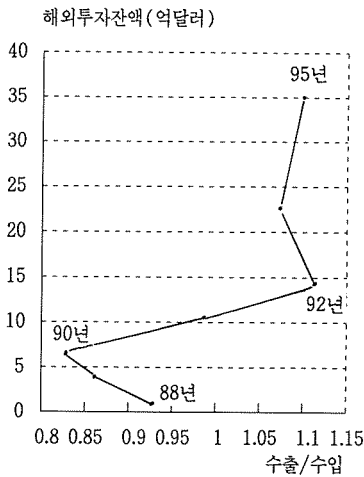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현지법인의 생

해외직접투자 잔액과 수출/수입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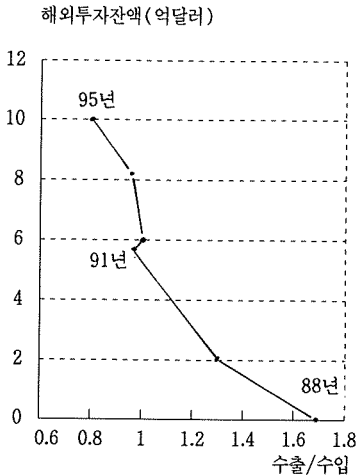
〈전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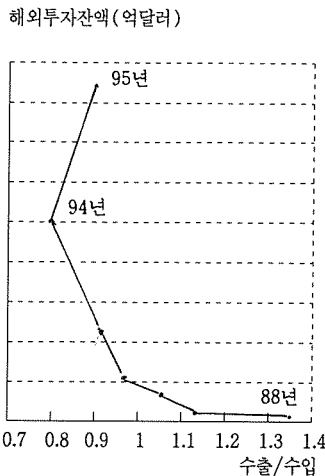
〈아시아〉



〈미 국〉



〈E U〉



산활동에 관한 통계 부재 등으로 해외 직접투자의 수출입에 대한 효과가 정확히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해외 직접투자와 수출간의 ① 그래프 분석 ② 투자와 수출 비중변화 ③ 상관관계 등을 통해 해외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우선 그래프에서 미국에서는 해외투자 잔액의 증가에 따라 수출수입비율이 하락하는 역J커브효과가 나타난 반면, 동남아의 경우 동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EU에서는 자본재 및 소재산업이 잘 발달되어 해외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수출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동남아 지역은 자본재 및 소재부품산업이 잘 발달되지 않아 해외 직접투자의 수유발효과가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80년대 중반이후 업종별 해외 직접투자 비중과 수출비율을 살펴보면 해외직접 투자에 따른 수출 증대효과가 경공업 및 조립 가공업보다는 소재, 부품업종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섬유·의복, 신발·가죽 등은 수출비중이 투자비중보다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비금속 및 1차금속은 수출비중이 투자비중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다.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는 수출비중이 투자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증가했으나, 두 비중 모두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다.

'79년 이후 '95년까지 해외직접 투자와 수출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한 결과, 제조업 전체로는 '正'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자 수출간의 상관관계

구 분	섬유·의복	석유·화학	1차금속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제조업
한 국 (79~95)	0.68	0.27	0.39	0.41	0.32
일 본 (80~94년)	0.62	0.36	0.17	0.21	0.33

주: 1) 두 변수 모든 뚜렷한 양(+)의 시간추세(time trend)를 지니고 있으므로 식(1)과 식(2)에 의하여 시간추세를 제거(detrending)한 변수, 즉 잔차(U_t와 V_t)를 이용하여 양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

$$\ln(FDI_t) = a + bt + U_t \quad (1)$$

$$\ln(X_{it}) = \alpha + \beta + V_t \quad (2)$$

단, FDI_t: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잔액

X_i: 공산품 수출

a, b, α, β: 추정계수

U_t, V_t: 잔차 In: 자연대수

2) 일본의 경우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것을 이용함.

업종별로는 섬유·의복, 1차금속, 조립금속 및 기계업종의 해외투자자는 '正'의 상관관계로 보인 반면, 신발·가죽 등은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외 직접투자자와 수출간에 '正'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3.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자의 평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자는 다른 국가에 비해 초기 단계에 놓여 있으며, 대체로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해외 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공동화를 유발시킨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고, 해외투자의 수출 유발효과나 국제 수

지효과, 산업구조를 통한 우리경제의 효율성 제고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주장이다.

특히 '93년 이후 우리기업의 급격한 해외투자 증가는 대체로 고비용에 따른 국내생산여건 악화, 해외시장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자는 자본재, 소재·부품산업 등 주력상품의 수출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에서 비중이 높은 산업이 업종별 공동화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성이

해외투자동기 변천 추이

(설문응답, 비율, %)

구 분	수입규제회피	생산비절감	판매시장개척	기술흡수	기타
87년	25	19	13	6	37
94년	7	49	37	2	5

자료: 상공부,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투자 현지법인의 운영실태 분석, 88년 통상산업부, 실태조사, 95년

큰 섬유·의복, 신발업종과 일부 전기전자 관련 첨단 주요 수출산업이다.

이중 섬유·의복, 신발업종의 해외투자자는 국제 분업구조 변동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불가피한 측면이 많았고, 국내 산업구조 개편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많으며 전기, 전자, 자동차 등 일부 첨단산업 등은 선진국의 보호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무역규제 회피용 해외투자자는 산업공동화 우려가 있으나, 국내 비용여건과 선진국 중심의 지역블럭에 대한 대처, 첨단기술 흡수, 판매시장 개척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더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자는 국내에서 비교 우위제품을 생산하고 섬유, 가전 등 성숙제품과 비교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첨단제품은 해외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첨단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이루어진 측면이 많다.

한편, 해외투자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많이 자유화됐으나, 경쟁국에 비해 아직까지 기업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적 추세에 동떨어진 규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외투자 자유화가 원칙적으로 '90년 이후 자유화됐

경쟁국별 해외투자제도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대 만
제도 변화	자유화	68, 최소 규정명문화 94, Negative System 95, 제한업종 대폭 축소 신고대상 대폭 확대	49,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80, 일괄 신고제 전환	62, 「대외투자변법」 87, 외환규제 완화, 해외투자 방식 확대, 업종제한 철폐 등 대폭자유화
	허가방식	신고제 : ~5,000만 달러 허가제 : 5,000만 달러~	3,000만엔 미만은 신고불필요, 투자금액 한도 없음	신고제 : ~2,000만 달러 허가제 : 2,000만 달러~
투자제한	제한업종	국내산업 경쟁력약화 우려 국내관련산업 피해예상 진출업체간 과당 경쟁 우려	(신고의무) 은행 및 증권업, 어업, 무기제조업, 마약업 등	국방안전 위해, 국내산업 발전에 불리한 업종
	제한국가	수출입은행의 국별신용도 A~D급 국가로 한정	(신고의무) 남아공, 나미비아	대중국투자제한
	자기자금조달의무비율	1억달러까지는 10% 초과분은 20%	없음	없음
	현지금융한계	모기업 누적지급보증 한도 100% 현지금융조달자금은 자기자금으로 불인정	-	-
	사후관리	외환관리 측면에서 규제의 성격이 강함	-	-
투자지원	금융지원	한도 : 투자액의 70%~90% 금리 : 6~7% 상환기간 : 10년	한도 : 투자액의 70%~100% 금리 : 0.75~8% 상환기간 : 10~20년	한도 : 투자액의 80% 금리 : 5~6% 상환기간 : 7년
	조세감면	손실준비금 20% 손실미발생시 2년거치후 4년분할 이익 환입	손실준비금 10~100% 손실미발생시 5년거치후 5년분할 이익 환입	손실준비금 20% 3년내 손실미발생시 3차년도 이익 환입
	투자보험	전쟁, 몰수 등 비상위험 보험금 : 손실액의 90% (단, 중소기업 : 95%) 보험기간 : 3~5년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 보험금 : 손실액의 95%, 신용위험은 40% 보험기간 : 5~10년	비상위험 대비 보험금 : 손실액의 85% 보험기간 : 7~10년

으나, 일본과 대만은 각각 '80년, '87년 이후 대폭 자유화되었다.

해외투자에 대한 정부의 관여도 상당히 존재하고 자의적인 해석의 소지가 높은 규정이 있으나, 일본과 대만은 원칙적으로 기업에 맡기고 있으며, 투자 지원제도도 조세와 금융면에서 일본과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IV. 해외투자자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1.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

현재 우리 경제의 여건 및 향후 대내외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해외 직접투자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 증대와 지역 블록화 심화 등을 감안할 때,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시장선점 혹은 개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부족한 자원의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하고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약화된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보완하는 한편, 국내산업의 구조

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직접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OECD가입에 따라 예상되는 외자유입에 따른 경제운용상의 부담을 해외 직접투자 활성화를 통해 자본의 해외유출을 촉진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우리의 해외투자자 전기·전자, 자동차 등 수출주력업종을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투자 성격도 “현지화”함에 따라 해외 투자의 국내경제에의 효과는 과거와는 다른 양태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우선 부정적 효과로는 자본재 및 원부자재에 대한 수출축진효과의 감소, 해외 생산체제의 정착에 따른 역수입 증가, 국내기술기반의 상대적 약화가 우려된다.

또한 단순생산직 인력에 대한 수요 감소와 이에 따른 전문 고급 인력과의 임금격차 증가 등 양극화 구조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면, 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른 본사 핵심기능인력의 확대 강화, 관련 전문서비스 직종에 대한 수요 증가 및 이에 따라 노동인력의 고급화가 기대된다.

더욱이 기술획득형 투자를 통한 첨단기술 습득 및 경영자본 축적과 이의 국내경제에의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과의 연계

'80년대 후반 이후 누적된 고비

용-저효율에 따라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반면, 저임을 바탕으로 한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우리나라 수출기반이 크게 잠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안정성장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서는 자본·기술 집약적 고부가 산업을 육성하고 단순 노동집약적 저부가 산업은 개도국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비교열위 산업에서 퇴출하는 유희자원을 고성장 부문에 재배치함으로써 경제효율을 제고하는 동시에, 개도국은 소재·부품산업이 미발달되어 있으므로 해외투자를 통해 자본재 및 부품, 중간재 수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비교열위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작기 때문에 여타 국내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작고, 기술이전도 대부분 저급기술이므로 우리나라 경쟁력 약화와 산업공동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다.

더욱이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수준의 제고가 필수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고비용-저효율 등 국내 투자환경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 유치로 획득할 수 없는 고급기술은 대선진국 투자진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습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높은 기술수준에도 불구하고

상용화가 미흡한 러시아, 동구권 국가들에 투자를 적극 권장하여 고급기술 습득과 수출증대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향후 해외 직접투자의 전개방향—산업공동화 해소 차원

결국 우리의 해외 직접투자는 기본적으로 범세계적 경쟁구도라는 새로운 국제경제 환경하에 기업의 존립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이로 인한 부작용은 해외투자가 억제되었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비해 오히려 경미할 수 있다.

해외 직접투자는 정부의 효과적인 구조조정과 전환정책이 병행될 때, 궁극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노동시장은 완전고용하의 전반적인 노동공급 부족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투자로 인한 구조적 실업의 문제에 비교적 수월히 대처할 수 있다.

결국 향후 해외 직접투자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부 업종의 산업공동화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산업구조 조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산업의 비교우위에 비해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구조조정 여건을 조정하고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개별 기업의 업종간 구조조정은 기업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자체적인 구조조정 노력은 기업내에서의 자원배분 메카니즘이라 할 수 있는 내부화(Internalization)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내부화 현상은 기업내 산업조정이라 할 수 있는 기업 다각화와 산업생산 조직의 국제적 재편성이라 할 수 있는 해외 직접투자 그리고 직접투자 결과 발생한 해외 자회사와 국내 모기업간 또는 해외 자회사간에 이루어지는 기업내 무역에서 동시에 찾아볼 수 있다.

해외 직접투자와 산업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부화의 잇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 자회사와 국내 모기업간 또는 해외 자회사간 기업내 무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비관련업종이 외연적 확대정책에서 벗어나 주력업종간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업중심의 다각화, 관련업종간 다각화전략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제조업 해외투자 업종은 대부분 생산기술이 표준화되어 있고 제품차별화가 비교적 크지 않음에 따라 해외사업에서의 경쟁요소는 가격요소이며 진입장벽도 비교적 낮아 여타 외국기업들이 쉽게 시장참여를 할 수 있는 부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 특유의 독점적 우위요소 없이 단순히 저임활용이나 수입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진입한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현지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확고한 독점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투자를 꾸준히 늘려 나가는 한편, 유기적인 마케팅망 확충과 현지 경영능력의 배양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소수 국가의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 편중은 투자위험 관리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할 뿐 아니라, 현지진출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유발하여 투자효율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투자지역의 다변화와 업종 다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업의 투자지역 및 업종을 직접 제한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면서 신속·정확한 투자정보 제공 등 후선지원기능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투자위험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금융, 해운·항공, 유통업 등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업종의 다각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현지진출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밖에 석탄, 석유 및 금속·비금속광물 등의 천연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해외투자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V. 정책제안

해외 직접투자의 증가는 글로벌화라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정부정책의 목표는 해외 직접투자에 존재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는 데 두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정책방향은 각종 규제 완화와 국내 산업환경의 개선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해외투자 정책에서 계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 제도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우선 '98년 폐지할 예정인 자기자금 조달비율 등 해외투자 규제는 국내투자 감소와 현지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특히 투자지역과 업종 등에 대한 판단은 기업에 맡기되, 특히 개도국에 대한 투자는 최소한 산업공동화의 우려가 적으므로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투자지원제도는 기업의 해외투자활동에 대한 조사 정례화 등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외협력 문제에 있어서는 주요 지역별 교류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되, 특히 OECD 가입 이후 본격화될 공적개발원조(ODA)를 해외투자와 투자지역의 다변화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향후 해외투자정책 방향

상 황	방 책 방 향	정 책 수 단
해 외 투 자 불 가 피	기존 규제 완화	- 자기자금조달 의무 비율 조기 폐지 - 투자지역, 업종 등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김
	체계적, 연속성 있는 지원제도 마련	- 기업의 해외투자활동에 대한 조사 정례화 등을 통한 DB구축 - 중소기업 해외투자 신용기금 설치 - 민간인력 활용 해외투자 자문제도 운용
	정부차원의 장기적 대외협력 강화	- 주요 지역별 장기적인 교류기금 설치 확대, 운용 ○ OECD가입이후 공적개발원조(ODA)와 해외투자 및 투자지역 다변화와 연계한 활용방안 강구
	장기적인 산업공동화 대비	- 국내 산업환경 개선, 외국기업투자 유인 ○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선 ○ 금융·세제상 혜택 부여 - 산업구조 조정 ○ 유희노동력 전업을 위한 직업훈련 ○ 고용흡수력이 높은 차세대 산업 육성

마지막으로 해외 직접투자가 급증하는 요인과 산업공동화가 되는 요인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국내의 고비용-저효율 구조, 지나친 정부의 개입이나 정책의 일관성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최종재 시장은 빠른 속도로 개방되는데 생산요소시장(노동력, 자금, 행정 서비스 등)의

자유화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국내 영업환경의 급속한 악화의 공통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해외투자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정책보다는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해서 전망있는 국내 기업이나 우수한 외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고용 흡수력이 높으면서 잠재성있는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

또한 일본기업들처럼 국내와 해외의 생산(특히 비내구소비재, 자본재, 공업용원료)간에 보완이나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야 장기적으로 볼 때 국내에서의 여론도 좋고, 해외에서도 현지인에 대한 경영권 탈취위험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